

## K-드라마 7090 레트로 감성의 귀환, 시대극이 만들어내는 공감의 미학

The Return of 1970s-1990s Retro Sensibilities in K-Dramas  
: The Aesthetics of Empathy in Contemporary Period Dramas

오준호\*

K-OTT 콘텐츠 드라마 시장에서 1970부터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각종 레트로(Retro) 감성 드라마가 주목받고 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복고 열풍’을 넘어, 한국 사회가 공유한 집단 기억과 집단 정서가 이야기로 다시 소환되는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의 도시 풍경, 일상의 패션, 대중음악과 같은 시각과 청각적 요소부터, 각 시대와 세대가 느꼈던 감정과 사회적 분위기를 정교하게 복원함으로써, 이제 다시 시대와 세대가 달라도 당시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2000년대 레트로 감성 드라마의 시작은 <응답하라> 시리즈였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2025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시대극 K-드라마로는 <폭삭 속았수다>, <백번의 추억>, <태풍상사> 등이 있다.



<사진 1> 레트로 시리즈의 시작을 연 <응답하라>(출처: 티빙)

\*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한국 철도 문화와 문화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ojh6407@naver.com

〈폭삭 속았수다〉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백번의 추억〉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그리고 〈태풍상사〉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을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각기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모두 ‘잃어버린 시간 속의 청춘(靑春)’, ‘역사적 격동 속에서 살아갔던 보통 사람들’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1. 1950~60년대 제주를 통한 감성 서사: 〈폭삭 속았수다〉

아이유와 박보검이 주연을 맡은 〈폭삭 속았수다〉는 1950년대부터 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과거 재현을 넘어 당대의 정서와 삶의 조건들을 진정성 있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레트로 감성 드라마에서 벗어나, 한국 현대사의 보다 아픈 기억과 깊은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 특히 제주라는 지역적 배경을 통하여, 그 시절 한국 사회가 겪었던 역사적 상흔과 지역 고유의 정서, 남녀 차별의 문제, 여성의 고난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제주의 푸른 바다와 거센 바람, 돌담길과 초가집이 배경이 된 장면들은 단순한 미장센을 넘어서, 드라마 등장 인물들의 감정선과 내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제주의 지리적 고립성과 공동체 중심의 삶은 등장인물들의 인간관계를 더욱 밀도 있게 구성하고,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주인공 ‘애순’과 ‘관식’의 일대기는 한국형 시대극이 자주 택하는 서사 구조인 ‘삶의 성장과 역사적 격동의 교차’를 잘 보여준다. 두 인물이 사랑, 이별, 재회, 그리고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삶이 어떻게 사회적·역사적 흐름 속에 위치하고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지 로맨스나 개인 드라마를 넘어서, ‘역사 속 개인’이라는 보다 넓은 시야를 제시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사회, 역사를 연결지어 사유하게 만든다.



〈사진 2〉 〈폭삭 속았수다〉  
포스터(출처: 넷플릭스)

결과적으로 〈폭삭 속았수다〉는 레트로 감성을 단순한 ‘복고적 미학’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의 복원’이라는 깊이 있는 정서적 접근으로 풀어내는 데 성공한 작

품이다. 이 드라마는 특정 시대에 대한 향수 이상의 것을 제시하며, 지금과는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되새기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폭삭 속았수다>는 단순한 시대극을 넘어, 한국 현대사와 인간 내면을 동시에 아우르는 감성 서사의 결정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2025년을 대표했던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는 근거가 된다.

## 2. 1980년대 감성을 뉴트로로 재현한 <백번의 추억>

<백번의 추억>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당시 서울을 오가던 ‘100번 버스’의 안내양들을 중심으로 한 감성적인 뉴트로 드라마다. 이 작품은 단순히 과거의 정서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라진 시대의 문화와 직업을 정교하게 복원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시절’의 분위기와 일상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한다.

특히 안내양이라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중심 서사에 배치함으로써, 잊혀진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조명하고, 그 안에서 시대의 감성과 인간 관계를 되새기게 한다.

드라마 속에서는 1980년대 대중교통의 상징이었던 시내버스의 문화가 시청각적으로 풍부하게 재현된다. 빵모자를 쓴 안내양의 유니폼, 손잡이를 붙잡고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드는 풍경, 거스름돈을 빠르게 계산하는 동전 소리까지 세심하게 담아냄으로써, 보는 이에게 과거를 실제로 ‘살아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더불어 당시의 거리 풍경, 광고 간판, 음악 등도 충실히 복원되어, 단지 ‘복고적 미장센’의 차원을 넘어, ‘시간 여행’에 가까운 몰입을 제공한다. 이러한 재현은 단순한 향수 자극을 넘어서, 당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감정과 태도, 가치관까지도 함께 떠올리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백번의 추억>이 특별한 이유는, 그 중심에 안내양들의 ‘우정과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단지 버스의 노동자나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한 시대를 상징했던 ‘이동과 일상의 연결자’로서 존재했으며, 그 속에서 자신들의 꿈과 고민, 관계를 쌓아갔다. 드라마는 이들의 일상과 갈등, 성장의 과정을 통해 시대를



<사진 3> <백번의 추억>  
포스터(출처: Jt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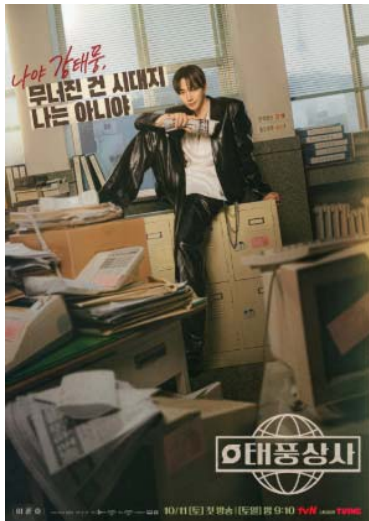
살아낸 젊은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고, 현재 세대에게도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한다. 사라진 직업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와 공동체의 풍경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뉴트로 감성으로 재해석된 1980년대의 진짜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만든다.

### 3. IMF 시대의 새로운 희망을 그린 <태풍상사>

<태풍상사>는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을 전면에 내세운다. 직원도, 자본도, 팔 물건도 없는 무역회사의 사장이 된 초보 상사맨 강태풍의 이야기는 다소 ‘만화적’ 설정을 품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실업·부도·불안으로 상징되는 시대의 공기가 짙게 깔려 있다.

이 드라마는 IMF 시기 평범한 청년들의 생존과 도전, 그리고 무너질 듯 버텨낸 일상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90년대 후반의 사회상과 청년의 생활력을 사실적으로 담아낸다. 한국 시청자에게 IMF는 여전히 공동체적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작품은 강한 정서적 울림을 형성한다.

<태풍상사>는 1997년 한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라는 역사적 배경을 중심에 둔 드라마로, 한국 현대사의 경제적 위기를 감성적으로 재해석한 뉴트로 작품이다. 드라마는 어느 날 갑자기 중소기업의 사장이었던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오렌지 족이었던 그의 아들이 무역회사의 대표 자리에 앉게 된다는 설정으로 시작된다.



<사진 4> <태풍상사> 포스터  
(출처: tvN)

이렇게 갑자기 사장이 된 드라마의 주인공 ‘강태풍’은 좌충우돌 생존의 모습을 보여주며, 다소 비현실적인 설정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정서를 정교하게 그려냈다. 직원도, 자본도, 팔 물건도 없이 시작된 태풍의 도전은 위기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연대를 상징하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간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단순한 경제 사건을 넘어, 수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가계와 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며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을 안긴 상처의 시기였다.

〈태풍상사〉는 이 시기의 무거운 현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되, 그 본질은 결코 흐리지 않는다. 특히 드라마는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겪는 실업, 빚, 가족 해체, 그리고 자존감 상실 등의 문제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당시 청년층이 직면한 불안정한 삶의 조건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동시에, 그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고통을 넘어서는 인간의 회복력과 공동체적 힘에 주목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생존 서사를 넘어, ‘청춘의 생활력’과 ‘긍정의 서사’를 강조한다. 주인공 태풍은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한 인물이 아니라, 시대의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유쾌함과 끈기를 잃지 않는 상징적 인물로 그려진다. 그가 만나는 동료들과의 갈등과 화해, 작지만 값진 성공의 순간들은 당시를 살아낸 많은 시청자에게 깊은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낸다. 이는 특히 IMF를 ‘공동체적 기억’으로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 강한 울림을 전달하며, 단지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에도 유효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 점에서 〈태풍상사〉는 시대극이면서도 여전히 현재적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 4. 7090 레트로 시대극 K-드라마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의미

최근 K-드라마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레트로 감성 드라마’는 단순히 과거의 유행과 스타일을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1970~90년대를 포함한 다양한 과거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들 작품은, 시대의 정서를 섬세하게 복원하고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 간의 감정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콘텐츠로 기능하고 있다. 복고는 더 이상 ‘옛날의 향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회적 기억을 환기하고 세대 간 소통을 이끄는 새로운 감성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드라마는 공동체 기억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예컨대, 1960~70년대 한국전쟁직후의 어려운 삶, 1980년대 경제 성장기,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같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전환점들이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현되고 재해석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역사적 배경 설정을 넘어, 과거의 사건들이 오늘날 개인과 사회에 어떤 감정적, 구조적 흔적을 남겼는지를 성찰하게 만든다. 드라마를 통해 이러한 사건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시청자들은, 잊혀져가는 역사적 경험을 감정의 차원에서 복원하게 되고, 공동체적 정체성에 대한 자각 또한 새롭게 하게 된다.

또한, 7090레트로 시대극 K-드라마는 세대 간 감정적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진 5〉 레트로 인문학

주목할 만하다. 과거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는, 당대의 감정과 사회 분위기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지만, 드라마는 정교한 미장센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 시대를 감각적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1950~60년대 궁핍한 생활상, 1980년대의 대중문화, 1990년대 직장 문화는 단순한 시청각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상황을 통해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과거에 대한 단순한 향수 소비를 넘어서, ‘과거를 통한 감정의 공유’라는 보다 깊은 층위의 소통을 이끌어낸다.

한편, 레트로 드라마는 소멸한 직업과 문화의 기록 가치 또한 지닌다. 현재는 사라졌지만 한때 사회를 지탱했던 수많은 직업들-예를 들어 버스 안내양, 구두닦이, 라디오 DJ

등-과 그 직업들이 속해 있던 생활 문화는 드라마를 통해 다시 기억의 장으로 소환된다. 이는 단지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지’ 하는 향수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시대를 구성했던 문화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그렇게 잊혀져 가는 문화와 직업은 단지 드라마적 장치가 아닌, 하나의 ‘기록’으로 기능하며, 시청자들에게는 문화적 자각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7090레트로 시대극 K-드라마는 지역성과 서사의 결합을 통해 공간과 이야기의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광주, 제주, 서울, 부산 등 각 지역이 지닌 역사적 맥락과 풍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예컨대 제주도는 〈폭삭 속았수다〉에서 섬의 자연과 언어, 그리고 역사적 상흔이 결합된 정서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런 공간의 활용은 각 지역이 지닌 고유의 서사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지역이 갖는 문화적 자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만든다.

결국 7090레트로 시대극 K-드라마는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를 비추는 감정의 거울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 거울은 세대 간의 단절을 연결하고, 잊힌 기억을 되살리며,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인간의 본질적 정서를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감정의 공유와 공감의 언어임을 일깨워준다. 앞으로도 한국의 현대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된 K-드라마의 감성적 확장성을 기대한다.